

주장사파라...

②0 탁났한 스님의 '옥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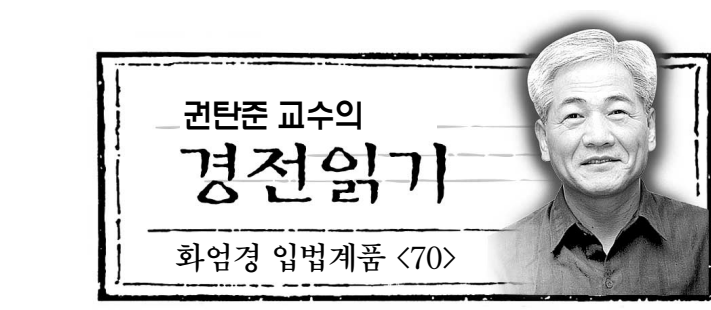
조태호



탁났한: 탁났한 스님은 베트남 출신으로 프랑스에 망명해 플립빌리지에서 수행공동체를 이끌고 있다. <화> <함> 등 80여권 저서 출간.

미륵보살은 선재동자의 여러가지 공덕을 칭찬하면서 그것이 보리심을 발하여 보살행을 구해서 성취된 것임을 말한다. 경문에는 보리심의 공덕이 여러가지 내용으로 아주 많은 분량으로 설명되어 있다. 미륵보살의 법문이 보리심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그리고는 미륵보살은 선재동자에게 "이 비로자나장엄장 큰 누각에 들어가서 두루 관찰하면 곧 보살행을 배우는 법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배우면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선재동자가 미륵보살에게 이 누각의 문을 열어서 들어가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하자, 미륵보살이 누각에 나가 손가락을 통해 소리를 내니 문이 열렸고, 선재에게 들어가라 하니 선재동자는 기뻐서 들어 갔으며 문이 곧 닫혔다.

누각의 문이 열린 것은 선재동자의 미혹이 없어져서 지혜가 나타난 것을 의미하고, 문이 다시 닫힌 것은 그 누각 안이 새로운 다른 세계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륵보살은 손가락을 통해서 소리를 내는 것처럼 지극히 일상적이면서도 쉬운 방법으로 선재동자를 이러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선재동자가 누각을 보니 넓기가 한량 없이 허공과 같고, 또 그 가운데는 한량없는 백천(百千) 누각이 있었는데, 서로 간에 아무런 장애 없이 날 날이 훌륭하게 장엄되어 있었다. 아승지 보배로 땅이 되는 등 누각 안은 모든 것이 한량없는 아승지 장엄거리로 장엄되어 있었다. 선재동자가 비로자나장엄장 누각이 이렇게 갖가지로 헤아릴 수 없이 자유자재한 경계를 보고, 매우 환희하여 몸과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모든 생각을



권관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70>

미륵보살의 법문(2)

모든 법 알때 보살 경지에 들 수 있어

삼세 경계 기억하는 지혜의 모습 설해

아는 때문이고, 또한 보살들의 자재한 힘을 얻은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서 선재동자는 마침내 미륵보살의 경지에 증입(證入)하여 일생보처 보살이 될 수 있었다. 미륵보살이 신통력을 거두고 누각으로 들어가 손가락을 통해서 소리를 내자, 선재동자는 그것을 듣고 삼매에서 일어났다. 이때 미륵보살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그대가 보살의 부사의하게 자재한 해탈에 머물러 보살들의 삼매의 기쁨을 받았으므로 보살의 신통한 힘으로 가지(加持)하고, 도를 돕는 데서 흘러 나오는 원과 지혜로 나타난 여러가지 훌륭하게 장엄한 궁전을 보았으며, 보살의 불사(佛事)를 행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선재동자가 이 누각 속에서 여러 가지 장엄과 자재한 경계를 볼 수 있는 것은 미륵보살의 신통력과 부사의한 환술같은 지혜의 힘과 그것으로 모든 법을

아는 때문이고, 또한 보살들의 자재한 힘을 얻은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서 선재동자는 마침내 미륵보살의 경지에 증입(證入)하여 일생보처 보살이 될 수 있었다. 미륵보살이 신통력을 거두고 누각으로 들어가 손가락을 통해서 소리를 내자, 선재동자는 그것을 듣고 삼매에서 일어났다. 이때 미륵보살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그대가 보살의 부사의하게 자재한 해탈에 머물러 보살들의 삼매의 기쁨을 받았으므로 보살의 신통한 힘으로 가지(加持)하고, 도를 돕는 데서 흘러 나오는 원과 지혜로 나타난 여러가지 훌륭하게 장엄한 궁전을 보았으며, 보살의 불사(佛事)를 행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선재동자가 이 누각 속에서 여러 가지 장엄과 자재한 경계를 볼 수 있는 것은 미륵보살의 신통력과 부사의한 환술같은 지혜의 힘과 그것으로 모든 법을

하는 지혜로 장엄한 곳집(入三世一切境界不忘念智莊嚴藏)으로서, 그 가운데에 불가설 불가설 해탈문이 있고, 일생보처 보살이라야 얻는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미륵보살이 설하고 있는 이 해탈문은 과거로부터 미래를 다지기까지의 삼세의 모두를 잘 궁구해서, 이것을 현재의 한 생각(一念)에 포섭해서 아는 지혜로운 모습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사유해서 무량한 덕으로 장엄된 깨달음의 풍광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경지이다. 선재동자가 누각에 들어가서 대장엄의 경계를 보는 것이 바로 이 해탈문으로서, 보살의 공덕에 관한 법문이다.

그러므로 선재동자가 보게 된 장엄들은 모두 선지식의 가르침에 따르고, 지혜와 자비심을 바탕으로 해서 행하는 모든 행원(行願)의 과보로서 얻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신통스러운 조화의 경계라고도 할 수 있는 장엄들은 법계의 지혜 경계가 응당 그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법신의 지혜 경계는 본래 고금(古今)이 없고 삼세(三世)의 성품이 없기 때문에 삼세의 부처가 일시에 서로 보는 동일한 지혜인 것이다. 그러므로 선재동자가 법을 잘 이해해서 진실에 감응하게 되자 미륵보살이 삼매에 행하는 경계를 볼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님이 행하시는 일(佛事)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선재동자가 이 장엄들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를 묻자 미륵보살은 '오고 가는 데가 없이 보살의 지혜의 힘으로부터 와서 그것에 의지해서 머무른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네터즌 교리문답

'참회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요'

문: 참회란 무엇인가요? 체험적인 참회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다. (ID '그날따름')

답1: 나는 스스로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마음에 걸리면 자꾸 그 생각이 떠올라서 제 자신을 괴롭히더군요.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곧 자신을 위한 용서이고 참회입니다. (ID '이산')

답2: 저는 늘 지나온 일을 되돌아 보며 참회하고 있습니다. 참회는 자기의 자만심을 낮추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진표 스님의 '참회기'를 보면 끝없는 참회의 끝에 부처님의 가피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참회는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정말로 노력한만큼 그 깊어짐이 나타납니다. 중국의 해가 스님도 참회하기 위하여 <천수경>을 오랜 기간의 위구다가 결국에는 달마대사의 안심법문으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ID '법설')

답3 '참(懺)'이란 전제 지은 악업인 어리석음과 교만하고 허황하고 시기, 질투한 죄를 다 뒤우쳐 다시는 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회(悔)'란 이 허물을 미리 깨닫고 아주 끊어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진정한 참회는 인일과 쾌락을 추구하는 오욕(색, 식, 수, 명, 무, 명예, 재물)에서 벗어나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것입니다. (ID '업장소멸')

부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선의 세계 44

교외별전(敎外別傳) - 4

선종에서는 교외별전, 즉 경전에 담긴 가르침 밖에서 별도로 전한다 하고, 이심전심(以心傳心), 즉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그리고 마음은 곧 만법의 근본이라고 했다. 불교용어로 만법(萬法) 또는 제법(諸法)이라 하면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현상을 뜻하니, 마음이 그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얘기가. 근본? 그게 무슨 뜻인가? 뭐 너무 심각하고 어렵게 여겨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뜻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자장면, 짬뽕, 아니면 우동을 그냥 마음대로 골라 시켜먹으면 된다는 식의 가벼운 뜻만은 아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현상의 진상을 제대로 보려면 마음을 올바르게

사실상 양의 다섯 가지 감각 기관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육체 또는 육경이란 그 육근 각각에 대응하는 감각, 지각의 대상을 말한다. 즉 눈에 보이는 물체(色)와 귀에 들리는 소리(聲), 코로 맡는 냄새(香), 혀로 느끼는 맛(味), 피부에 접촉해오는 자극(觸), 그리고 지각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法)을 가리킨다. 앞의 글에서 그 뜻을 소개한 법(法)이라는 말이 여기에 또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법은 마치 지각, 감각의 대상 여섯 가지 가운데 하나인 뜻이 목록에 끼었지만 사실상 눈으로 보는 물체에서 피부로 느끼는 자극까지의 다섯 가지도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진상 보려면 바른마음 가져야 모든 현상 겉모습에 불과한 것

다음으로 각각의 지각, 감각 기관과 그 각자의 대상이 만나서 감각, 지각을 일으키는 것을 가리켜 식(識)이라고 하였다. 안식(眼識), 이식(耳識)에서부터 의식(意識)에 이르기까지 여섯 가지이다. 여기에서도 의식은 앞의 다섯 가지 감각까지 다 포함하는 정신작용 전체를 가리킨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복잡한 육근, 육체, 육식 개념을 이야기하는 취지가 어디에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사물과 현상이 우리가 감각하고 지각하는 그대로인 듯이 철썩 같이 믿어 의심치 않는데, 우리가 사실 그대로라고 여기는 그 모습들은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감각하고 지각하여 인식하는 내용을 덮어씌운 것일 뿐이라는 얘기이다. 선종에서 말하는 마음이란 일단 그런 우리의 정신작용을 총칭하는 뜻도 가진다. 마음은 만법의 근본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서서 이어내다 뜻이다.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6x6 grid for a crossword puzzle. Numbers 1-27 are placed in the grid to indicate starting positions for words.

정답은 34면에

상식퍼즐

가로 1. 영혼 5. 경성북도 남부 중앙에 있는 도시 7. 서로 상대편을 믿고 맺는 사적(私)적인 협정 8. 대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할 9. 승부를 겨루는 싸움 11. 충북 북부군 내속 리면(內俗鎭面) 속리산에 있는 절 13. 불가의 장례의식 14. 살던 곳을 떠나다른 데로 옮길 15. 물고기를 소금에 절인 반찬 16. 불생불멸의 참된 마음을 이르는 말로 주로 어린이를 비유해 사용할 19. 불교의 계율을 집대성한 율장(律藏) 21. 모래를 성처럼 쌓은 것 23. 일대사(一大事)의 인연 24. 오게 가운데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다는 계율 26.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도리 27. 검열이나 조사를 위하여, 살피도록 하다

세로 1. 해를 맞이할 2. 가사를 짓는데 비용을 내는 사람, 또는 그 3. 비탄 개념을, 즉 부처님의 경지를 말할 4. 지장보살을 봉안한 전각 5. 광대한 자비 6. 발로 전함 10. 축하하는 뜻으로 부르는 노래 13. 늘 있는 예사로운 일 17. 부처님 몸에서 나온 사리 18. 동글고 길게 늘어 만든 것의 도막 20. 미혹의 세계에서 해매는 법부가 받는 생사 21. 절에 재물을 기부하도록 권하는 글 22. 깨달음을 완성하는 것 23. 대강의 뜻 25. 서로 관계가 있거나 유사한 점에서 연결되는 계통이나 조씨